

# 고대 마야 사회의 공동(共同) 재정(財政) 운용에 나 타난 정치 경제적 특징

— 빠탄(Patan)의 성격과 특징을 중심으로 —

송영복\*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제목에 쓰여진 “고대 마야 사회의 공동(共同) 재정(財政) 운용”이라는 것을 보고는 언뜻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마야의 조세제도(租稅制度)는 어떠한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제도”라고 딱 잘라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조세라고 하는 사회제도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나 정의 등을 연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궁리 끝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현상을 그들의 시각에 좀더 가깝게 접근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세’라고 하는 말과 비교할 만한 마야어인 빠탄(Patan)이라는 용어를 소제목에

---

\*경희대학교 강사

붙여 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조세제도라는 것을 연구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마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빠판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고 그것의 성격과 역할 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제도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그런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이곳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빠판은 조세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조세와 크고 작은 마을간의 무역 그리고 마을을 운용하는 행정의 우두머리이자 종교적인 지도자에 대한 선물의 요소 등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 비록 다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 그래도 조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세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마야의 조세 제도' 라는 제목 하에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조세라고 말할 수 있는 고대 마야의 관습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일련의 관찰과 이에 따른 경제 현상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아메리카대륙 고대 문화와 다른 문화의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차이를 발견하는 것 역시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논지의 빠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마야 사회에서 '세금'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것들은 — 그것이 빠판이건 아니건 간에 — 기본적으로 마을사람들 전체의 현실적인 필요에 기인한 것이고, 결국 그 집행도 일부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일부 집단의 집단적, 차별적, 장기적 악용이나 특권은 용납될 수 없었으며 이는 작은 규모의 가족체제가 주가 되는 사회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운영의 실질, 형식적인 주가 되는 것은 각 가족의

우두머리들로 대표되는 보통 주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경제적인 집단행동은 그 동인(動因)이 각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있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빠판이 거두어지고 쓰여졌으며, 이는 일부 집단의 사회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마야의 조세 제도가 우리들의 그것과 상당히 틀리다는 전제를 비추었음으로 독자의 단어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조세라는 말을 이들의 말인 '빠판'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빠판이라는 말은 꼭 조세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바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조세와 빠판은 비슷한 것이지만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상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이 조세라는 단어로 국한지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또한 그들의 현상을 그들의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토착어의 적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강조해 본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각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일 먼저 이제까지 마야의 '조세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학계의 입장은 어떠한지 짚어보자. 그리고 나서 마야 재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마야의 정치, 경제 구조의 중요한 성격들을 간단히 배경적으로 설명하겠다. 다음으로 '조세'라는 말과 비교해 보게 될 '빠판'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어원적 접근을 시작으로 빠판의 책정, 납부 방법, 양(量), 면제 혜택, 집행, 상호부조적인 성격 등의 면을 따져보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나 '무역'이라는 것들과 어떠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16세기에 유럽어로 쓰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이 내용이 가질 수 있는 시대적인 한계는 유럽 정복 이전의 마야 후고전기(기원후 900~1521) 후반의

마야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관한 그 이전 시기의 사료는 아직까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그 이전 시기의 조세, 무역, 선물에 관한 논의를 가능케 해줄 역사적인 자료는 너무도 빈약하다. 따라서 마야의 고전기나 전고전기 사회에 적건 많건 간에 이 논의의 일부가 이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음을 밝힌다.

상정해 놓은 주제를 그 당시의 사료를 바탕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섬세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시의 사료들은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에스빠냐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원주민들이 기록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스빠냐 사람들에게 의하여 검열을 받은 것이 많았다. 이러한 여건은 특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조세제도라고 하는 특수한 점에 있어서 더욱 민감해진다. 에스빠냐 사람들의 착취에 시달린 원주민들은 식민지 초기에 가중되었던 세금의 압박을 덜어 보려는 의도에서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에스빠냐 사람들은 에스빠냐 사람들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정복이전 마야 원주민들의 증언을 때에 따라 과장하거나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료의 왜곡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여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다른 여러 자료들과의 대조연구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비판의 여과 과정을 통해 우리의 논의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적으로 과테말라의 고원 마야 지역, 멕시코 치아빠스 마야 지역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부 마야 지역의 사료들을 각각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 2.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 마야의 조세제도

마야의 조세제도를 고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통상적인 조세(租稅)의 개념과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일반적인 마야 역사의 기술에서도 마야의 조세제도라는 말을 특별히 다른 주석을 붙여 이질적인 면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즉, 마야의 조세제도가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조세제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제일 먼저 고대 마야 사료들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겠다. 많은 마야의 사료들이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던 조세제도의 일반적인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 마야의 조세제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에스빠냐의 아메리카 침략 초기인 16세기의 지방행정 관들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 y pagaban su tributo en oro, cacao, mantas, quetzales, esclavos, y acud an con todos los demás servicios personales, sin que tuviesen reconocimiento a otro señor alguno.”(Relaciones G.G.: 104) 이 글에서는 각종 지방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마을 행정의 우두머리들의 사적인 일까지도 해 주었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제급구조의 고착화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서양의 조세제도와와의 유사성을 마야의 사료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유럽인들의 기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자신들의 증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Vinieron a asignar el tributo [patan] para cada parte de[l pueblo]: cada uno [=

---

1) 비록 원주민들의 사료라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료들은 유럽어 특히 에스빠냐어로 쓰여져 있고 상당부분 왜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자신이 에스빠냐어를 배워서 에스빠냐어로 적는 경우, 원주민이 구술하고 에스빠냐 사람들이 기록하는 형식, 원주민이 에스빠냐어의 알파벳만을 배워서 마야어 음(音)값 대로 적는 방법이 있다. 이곳에 인용된 코드세 깔끼니(Codice de Calkini)는 제일 마지막 형태이다.

aldeas de Calkini] cinco ... pavos, cien pavos formaron un conjunto. Del mismo modo, respecto al maíz, cien integración su totalidad. Pero no eran de grandes sino de pequeños en costalejos atados. Hubo cinco cantaros de miel y diez canastas grandes de algodón desmotado. (Codice de Calkini: 79)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정치단위들은 각 마을에 배당되는 일정량의 조세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즉, 마을 자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뼈단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아서 일정량은 중앙정부에 보냈다는 말이다.

이렇게 다양한 마야 연구의 자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적 조세의 형태들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요소들을 특별히 세심한 관찰 없이 보게 되면 이들의 뼈단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조세제도와 그렇게 크게 다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관련 분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마야의 조세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칼막은 그의 기체족 연구에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여섯 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일반 평민의 의무적 조세부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귀족들의 집에 가서 해주는 노동력 봉사
- 2) 80일마다 한 번씩 내야 하는 정기적인 세금
- 3)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변 마을에 바쳐야 하는 공물
- 4) 일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 때 내야 하는 세금
- 5) 파종, 수확, 건축 등의 행사 때 내야 하는 세금
- 6) 결혼, 세례 등의 의식에 동원된 사제들에게 주어야 하는 물질적 보상(Carmack: 81)

결국 사료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한 관련 학계의 입장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신분적 지위의 차이로 확대 분리하고 마야의 조세제도가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라는 설명에 도달하게 된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이 글은 기존 이해의 틀의 이면에 있는 빠딤의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설명의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사실상 마야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일반적인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필자 논지의 출발이 있다. 따라서 마야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세제도와는 그 개념과 운영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 빠딤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 재정 체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서두의 제언으로 놓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빠딤은 무엇이며 어떻게 불려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조세제도와는 어떻게 틀린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들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테마와 연관된 마야의 정치, 사회구조를 배경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야 사회가 공동 재정 운용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개념과 운용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이 빠딤이라고 하는 재정 충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정치 사회적 특징<sup>2)</sup>

전통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마야의 정치사회 구조는, 도시의 중심

---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들(송영복, 1998, 1999)을 참조.

지에 있는 장엄한 건축물들에서는 왕과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귀족과 제사장들이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며, 평민이나 노예들과 같이 사회적 중요성이 적은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지대에 살면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고고학적 연구와 사료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배경으로 한 촌락구조와 그 사회계층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자급자족적인 촌락구조와 독자적인 정치운영에 주목하게 된다. 정복이전 마야의 어느 지역에서나 이러한 반 독립적 대가족 촌락구조가 지배적으로 존재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규모의 발굴과 지표조사의 보고서, 촌락구조에 중점을 둔 심도 높은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들에 의하면 마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란다(Landa 1986)의 사료를 배경으로 주장해 온 중앙 집중적인 도시형태 모델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고고학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복기를 전후로 한 역사사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유카탄 지역의 정복전야의 정치 사회체제는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가족 단위들은 꾸츠떼엘(cuchteel) 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반 독립적 단위를 형성하는데, 이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ㄱ) 친족관계 중심의 대가족 모임으로서 가족대표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치참여를 한다.

ㄴ) 독자적인 마을의 이름을 가지며, 가족 중심적 농업을 행하는 자체토지를 경작한다. (토지는 공동소유이며, 각 경제활동단위들이 경작권을 행사한다.)

ㄷ) 행정과 군사유지를 담당한다.

ㄹ)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한 자립적 경제활동을 한다.



결국 이 꾸츠떼엘은 모든 영역에서 고대 마야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단위이다. 여기에서 이들이 반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급자족적인 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활발한 물물교환과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각 꾸츠떼엘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동맹의 형태로 더욱 커다란 정치 단위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부 정치 단위들로써는 꾸츠떼엘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바따빌(Batabil)이나 꾸츠떼엘과 바따빌 그리고 바따빌들로 이루어지는 연방체적 부족국가의 형태를 가지는 꾸츠까발(Cuchcabal)이 있으며, 이 바따빌과 꾸츠까발에서는 각 꾸츠떼엘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장거리 무역, 종교의식 등을 관리하였다. 결국 이러한 성격은 이들 동맹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설명한다. 즉,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꾸츠떼엘의 상위 정치단위들은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행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 꾸츠떼엘의 상위 연합 단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꾸츠떼엘의 연합인 바따빌(Batabil)이나 그 위의 꾸츠까발 등에서 권력의 중앙 집중적인 성격이나 강력한 대표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유까탄 반도의 정복사는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곳을 정복한 에스빠냐의 몬테호(Montejo) 장군은 몇 개의 국가(꾸츠까발, Cuchcabal)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적인 작은 씨족 단위들과 일일이 싸워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꾸츠떼엘 안에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각 대가족 단위의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위원회이다. 각 꾸츠떼엘의 우두머리들은 주민들과 실질 상징적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씨족의 어른으로서 존중과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특징들은 앞으로 보게 될 이들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배경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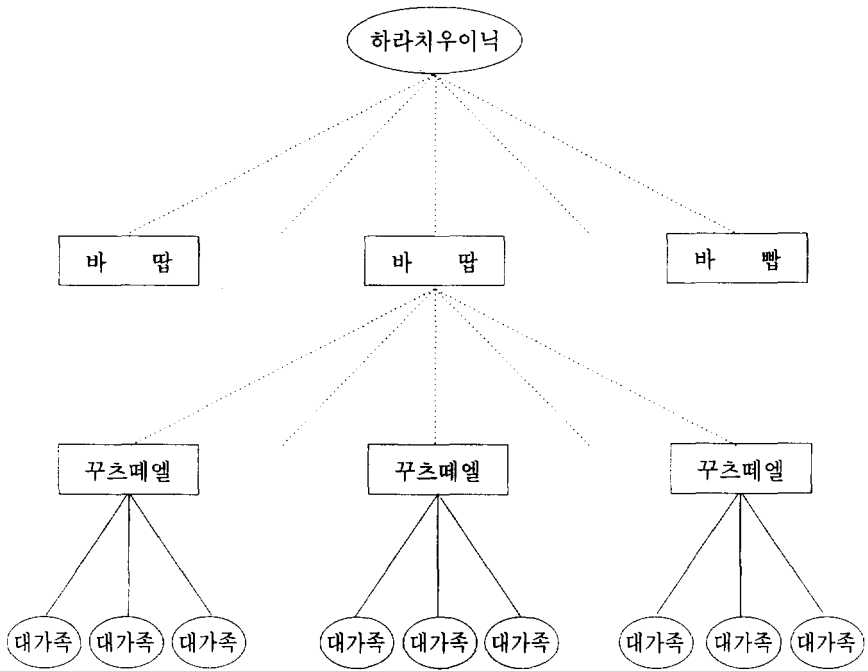


도표: 마야 정치체제의 구성(꾸츠가발)<sup>3)</sup>

#### 4. 경제 구조<sup>4)</sup>

이들의 경제구조는 마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개인적인 토지 소유와 사유재산의 존재 유무이다. 많은 역사사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마야인들은 토지의 공(公)개념을 가

3) 이 도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송영복 1998, 1999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송영복, 1998, 1999) 참조.

지고 있다는 것과, 개인 재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富)가 구대륙처럼 중요한 사회, 정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인 소유개념은 없었으며 다만 개인이 그 경작권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념과는 또 다른 것으로서 애당초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경제적 부의 역할, 나아가 사유재산의 존재 유무에 있어서도 이들은 상당히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간단히 살펴보면, 부자(富者)라고 하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유카판 마야어는 끼리스(kiliz)이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6세기에 만들어진 마야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모뿔의 사료에 보면 이 단어의 속뜻은 ‘늙은이(viejo)’, ‘노인(anciano)’ 이고 그 중에서도 ‘가족이 많은 부자(el hombre rico que tiene mucha familia)’라는 것을 알게 된다(Calepino de Motul: 423). 결국 이를 풀이해 보면 부자의 뜻은 가족을 많이 거느린 노인이란 말이 된다. 16세기 정복 초기 식민지 지방장관들의 조사 보고서를 관찰해보면 각 원주민 촌장들의 재산목록이 일반 농민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전 마야 지역을 통해서 거의 공통되게 확인해 볼 수 있다(Quezada: 286). 뿐만 아니라 마야 끼체지방의 신부였던 히메네스의 기록은 이러한 점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 estos pobres aunque sean ricos, aunque sean Alcaldes gastan la misma llaneza que los demás.”(Ximénez: T,1, L,P, C.XXXVI, 106) 한편, 고고학적인 연구의 성과들도 사회 구성원들간의 사유재산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arquez: 10 -11, Freidel: 376-377, Chase: 356, Alvarez: s/p, Scanborough: 175). 오키시는 유카판 지역의 사료분석과 언어학적인 도움을 받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제한적인 사유재산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입장을 전면 부인하였다(Okoshi 1992, 1995). 즉 마야 사람들은 물질적인 다소(多少)에 기준한 사유재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의에 대한 검증이 다양한 반양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최소한 물질적인 소유자체가 고대 마야 사회에서 그렇게 큰 의미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이는 경제 요인이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의 절대적 우열을 가리는 현대의 경제 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사실상 마야 사회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금의 문제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특징은 마야가 보여주는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산 형태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많은 농업, 건축 등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두레나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 5. 빠딤의 어원과 의미

빠딤이라는 말은 전체 고대 마야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로 식민지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조세, 혹은 세금 등의 말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유까딤의 마야 사람들뿐만 아니라(Calepino de Motul: 626) 과테말라지역의 끼체 지방에 살았던 마야 사람들도 빠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었으며(Primera parte...: 447) 멕시코 치아빠스 지방의 마야 사람들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Ara: 359, folio 84r) 지금은 30여 개나 되는 각각의 언어가 독특하게 분화 발전함으로써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언어가 되어 버렸지만 마야의 고전기(대략 0—기원후 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빠르또 마야(Proto Maya) 라고 하는 하나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언어의 많은 단어들이 어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일한 발음을 사용한다. 이 빠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빠르또 마야어의 어원을 유지한 경우로서 당시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16

세기 이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리고 그 속뜻은 무엇인가? 이 단어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공물', '조세'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에스빠냐어의 '뜨리부또(tributo)'라는 단어로 대부분의 사료에 기록되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료나 사전들은 에스빠냐 사람들이 식민지시대 초기에 이들을 통치하고 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들이다. 따라서 극히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결국 이 단어의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야어 어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단어의 속뜻을 마야어에서 찾아보면 조세라는 개념과 관계없는 점들을 상당히 발견하게 된다. 이 단어는 에스빠냐 사람들에 의하여 조세라는 뜻이 붙여지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복이전의 고대 마야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주제와 관련된 뜻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어근이라 할 수 있는 **뻐(Pat)**은 '새로운 물건의 형태를 만들다'라는 동사로 활용되었으며, 여기에 과거분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an**이 붙여져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Diccionario Maya: 632-634). 그러나 이 '만들어진 것'이란 표현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단어의 식민지시대의 쓰임이나 문장에서의 활용(Codice de Calkini: 79)을 관찰해 볼 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재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 이 단어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조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뻐(Pat)**의 다른 뜻인 '흙으로 만든 것', '... 하는 척하다', '공표하다', '별명을 붙이다' 등에서도 조세라는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힘들다(Diccionario Maya: 632-633).

치아파스 마야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뻐(Pat)**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카카오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의 중요한 조세 품목 중의 하나인 카카오가 이후 **빠탄(Patan)**이라는 말의 어

원을 구성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Ruz: 198).<sup>5)</sup> 그러나 다른 지역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유까탄의 마야어에서는 이 단어가 가지는 연관된 다른 뜻이 일부 활용에서 보여진다. 빠탄과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는 '빠뜨꾸나(Patcunab)' 라는 단어의 뜻은 '셰르비르(servir)' 혹은 '수스텐따르(sustentar)' 즉, '봉사하다', '유지하다' 이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당시의 문장에서의 쓰임을 보면 각각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빠뜨꾸나 추우빨(patcunab chup'il)' 은 '남편이 부인을 부양한다', 그리고 '빠뜨꾸나 씨이빌(patcunab xibil)' 인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을 부양한다' 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Calepino de Motul: 628).

결국 '만들어진 것' 이라는 표현과 '유지하다' 라는 뜻을 묶고 여기에 전체적인 마을 공동의 기금이라는 점을 정복 이후의 해석인 '조세' 라고 하는 뜻에서 살려 종합해 보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 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인 가능성일 뿐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6)</sup>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단어와 관련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학적인

5)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표기상의 문제로 P'at 이나 Pat' 등이 원주민어 표기의 통일안이 없었던 당시에 Pat으로 잘못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마야어 표기에 나오는 '(예: maya't'an)는 나오는 소리를 일시적으로 목에서 정지시킴으로서 갑자기 성대를 막는 마야어 발성법 특징 중의 하나인 그로따리사씨온(Glotarización)을 나타낸다.

6) Pat, P'at, Pat' 과 연관된 단어가 쓰인 모든 사료를 조사하여 그 활용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부 마야 유까탄어로 된 모둘(Calepino de Motul), 깔끼니(Codice de Calkini)사료 그리고 치아빠스주의 쉘 딸어로 된 아라(Vocabulario de lengua tzeldal seg n el orden de Copanabastla) 사료에 국한되었다.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다만 ‘마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버리지 말고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다른 사료들을 살펴보자.

## 6. 빠탄의 제정(制定)

위의 정치 사회적 특징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마을의 일들은 대가족장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빠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종류의 중요한 마을의 지출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이를 직, 간접적으로 결정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송영복 1998: 53-57). 정기, 통상적으로 거두어 들여서 일반 행정에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열려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마을 위원회의 강력한 심사기능은 단순히 마을 내부의 재정충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연맹의 일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이러한 빠탄의 심의와 관련한 운영방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들 이외에도 빠탄이 어떻게 각 구성원들에게 형평 있게 배당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원활함 역시 관찰 할 수 있다.

Para las cosas y obras que concurren con sus pueblos tampoco los Alcaldes son absolutos sino que se llaman a los principales y juntos todos confieren la materia que no son tan rústicos que no conozcan lo que les conviene y resueltos, se ven qué medios se han menester y se determina lo que ha de dar cada uno del pueblo y cada cabeza de Calpul recoge lo que toca, poniendo él primero lo que a él le toca y lo mismo a los Alcaldes de suerte que todos van por un rasero y con la misma igualdad; salvo si son muy pobres, que también atienden a eso, y cada uno dá cuenta de los que no han contribuido y la causa y

de este modo hacen sus cosas y las obras de Iglesias, y las adornan muy bien; que en todo esto son magnánimos ... (Ximénez, T. I, L. P., C. XXXVI.; 104)

마을에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마을의 우두머리(Alcalde)가 절대적(absoluto)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principal)을<sup>7)</sup> 불러서 제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위의 글에서는 단순히 마을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과 필요성에 의하여 빠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칙이 마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족장 중심의 결정과 운영체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모가 큰 바빔이나 하라치, 우이니깁 같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행사는 대단위의 종교제례의식이나 건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각 꾸츠펜엘에서 보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각 꾸츠펜엘은 각 가족장들의 납부에 의하여 재정부분을 충당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담과정에서의 공평성(igualdad)이다. 그러나 이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똑같은 절대량의 빠만을 동일하게 부담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pobres)은 조금 냈다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더욱 자세히 보겠지만, 마야의 공동 재정(財政) 체제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부조와 협동이라는 흐름을 통해 어떻게 역동성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 사료는 끼체지방의 마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유카탄 저지대의 마야 역시 그러한 운영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16세기 초 에스빠냐 정복이전의 유카탄 깔끼니(Canul) 연맹은 16개의 바빔체제(Batabil)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 대단

7)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확한 언급이 없으나 마을 위원회의 구성원 들일 가능성이 높다.



위 연맹단위의 행정을 이루었다(Okoshi: 185).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경제적인 지원은 각 바빔 그리고 꾸츠떼엘에서 충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각 대가족장들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각 마을 혹은 중앙 정부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면 각 가족대표 혹은 마을의 대표자들이 모여 이를 심사하고 각자의 경제적인 형평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하여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책정 과정에서 보여주는 빠딤의 기본적인 성격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7. 빠딤 납부 방법의 융통성

빠딤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품목에 있어서 일정한 물건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특징을 제일 먼저 들 수 있겠다. 란다의 사료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allende de la casa hacía todo el pueblo a los señores sus sementeras, y se las beneficiaban y cogían en cantidad que los bastaba a él y a su casa; y cuando había caza o pesca, o era tiempo de traer sal, siempre daban parte el señor porque estas cosas siempre las hacían en comunidad.” (Landa: 35)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생산하는 품목을 빠딤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던 간에 마을에 필요한 것 즉,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굳이 일정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노동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들에게는 마치 빠딤에 충당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히메네스 신부의 말에 따르면: “... ofrecían desde el que había de acarrear agua y leña para el mesón, hasta los que habían de barrer la plaza. (Ximénez, T. I, L. P, C. XXXVI: 105)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것(acarrear agua)에서부터 마

을 광장을 청소하는 일(barrer la palza)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빠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는 여러 종류의 사료들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다 “... y lo que se ha entendido que les tributaban era cada uno de lo que tenía: maíz, cacao, gallinas de la tierra. Y los que no tenían, acudían a los servicios personales que les mandaban.” (Relaciones G.G.: 40) 이 경우에는 빠판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신하여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빠판을 대신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제공이 마치 빠판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대체수단으로 표현되었는데 사료에 마야 사람들의 부(副)의 개념에 있어서 노동력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앞으로 보게 될 빠판 면제의 조건 등의 정황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노동력 제공자체가 원래부터 빠판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까판 지역에도 나타난다: “Y después de su muerte, y aún antes, hubo otros señores en cada provincia y no llevaban tributos a sus vasallos más de los que ellos les quer an dar, salvo que les servían con sus personas y armas en la guerra todas las veces que se ofrecía.” (Relaciones H.G.G.Y.: 94)

결국 이와 같은 특징은 근본적인 마야 사회의 재정조달 방법의 성격과 역할의 이해를 통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다. 빠판 자체가 마을 전체 구성원의 필요에 의하여 가장 강력한 심의결정 기관인 마을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점을 상기하자. 본격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주민과 정부행정의 분리가 마야 사회의 경우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의 재정을 충당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노력이 마을 사람들의 상호 이해 속에서 최대한의 운용의 역동성을 허락한다. 즉 형태와 방법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각자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빠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소단위의 마

을에서 자치적인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 8. 빠판 양(量)의 융통성

빠판의 양(量)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에 근거한 자율적 요소가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빠판의 존재이유나 그 운용이 마을 사람들의 필요와 이해에 의하여 만들어진 요소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일변도의 강압적인 징수가 아니라 그 양을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료들이 정복 이전 마야의 풍습을 전하면서 이곳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 세금을 내다보니 그 양이 상당히 적었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 y el tributo que le daban no era más de cierto reconocimiento de una gallina cada año y un poco de maíz al tiempo de la cosecha, y miel. Y después de su muerte, y aún antes, hubo otros señores en cada provincia y no llevaban tributos a sus vasallos más de los que ellos les querían dar, salvo que les servían con sus personas y armas en la guerra todas las veces que se ofrecía. (Relaciones H.G.G.Y.: 94)

결국 그러다 보니 식민지 시대의 에스빠냐 사람들에게 의한 과도한 세금 징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경제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마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에 의하여 인증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형편에 따른 양이 조절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빠판에 대한 지출 자체가 그들의 전통을 깨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괴리감을 관찰하게 되는 에스빠냐 사람들에게도 이들의 관습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이전의 마야 사회에는 자율적인 세금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 에스빠냐 사람들에게는 이

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무부여와 이에 대한 무기력한 저항 그리고 혹독한 핍박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스빠냐 사람들의 착취정책은 원주민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다. 마야의 촌장들이 식민지 지방행정관의 손을 빌어 적은 기록에 보면 고대 마야 시대에는 자율적인 세금징수가 이루어졌는데 식민지 시대에 와서 너무 많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쓰고 있다: “... la causa de esto [disminución de la población indígena] dicen los naturales que es de la mucha cuenta que con ellos se tiene el día de hoy, porque en su gentilidad los señores los dejaban a su voluntad.” (Relaciones H.G.G.Y: 166)

마야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인 꼬골유도의 사료 역시 유카탄 반도 마야뻬이라는 도시의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 cuando los señores de la ciudad de mayapán dominaban, toda la tierra les tributaba. El tributo era mantas pequeñas de algodón, gallinas de la tierra, algún cacao, donde se cogía, y una resina, que servía de incienso en los templos, todo se dice era muy poco en cantidad.” (López Cogolludo, T. I, L. IV, C.III: 328)

이곳의 원주민들이 에스빠냐 정복이전 시기에는 자율적인 양과 자율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었다고 하는 증언은 유카탄 반도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지역의 사료에서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이곳을 정복하여 마야 지역의 평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페드로 알바라도(Pedro Alvarado)의 기록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 los indios de ella no dan a los españoles oro ni plata ni mantas, como los indios de la Nueva España, salvo maíz y ají, y eso muy poco, y lo que los indios les quieren dar de su voluntad sin premia ni fuerza alguna ....” (Archivo General. 180-1-64: 359) 이 자료에서도 자율(voluntad)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아주 조금(muy poco), 원하는 만큼(quieren)이라는 말 등으로 에스빠냐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 마야 조세제도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단순히 원주민들의 세수 부담이 적었다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빠탄 자체가 마을의 필요이자 곧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았다. 그래서 빠탄 자체가 적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빠탄을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낸다고 하여 납세자들이 항상 적게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빠탄의 필요성이 더욱 많아질 때는 —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을 구성원들의 공감이가 형성된다면 — 평소에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즉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게 낼 수도 있지만 역시 여건이 주어지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마을 공통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자치적인 행정단위들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면이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Quando no había suficientes reservas para pagar a los holcanes, soldados de los pueblos, la gente regalaba bastimentos y todo lo necesario. La mayor parte de las contribuciones al aparato administrativo y militar pasaba por el servicio personal. La compensación al clero, se dice, era de ofrendas voluntarias de cuentas rojas y verdes, vestidos de algodón, cacao, maíz y otras provisiones. Mucho de estos regalos se daban como pago a los servicios recibidos (Fernández: 119).

이 경우는 마을의 공인(公人)을 위하여 주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마치 빠탄처럼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체적인 생활 양식은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빠탄의 형태를 통하지 않고도 각출이나 상호부조, 공동노동 등

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제정이 담당해야 할 것들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충당한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공식적인 세금의 양은 작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빠따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필요성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여러 부수적인 정황들을 보고 있다.

## 9. 빠따의 면제

일부 사람들에게는 빠따가 면제되었다. 특히 마을의 최고 지도자와 사제들은 빠따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빠따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들에게 특권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아가 사회계층간의 차별적인 경제적 특권을 인정하는 사회구조가 마야 빠따의 개념과 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이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의 대상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직에 종사하는 지도자들만이 면세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전체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하는 도공(陶工), 수공업 종사자, 석공(石工) 등도 역시 이러한 면세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점에 대하여 사료가 전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자.

Pues si es trabajo de la comunidad o de la Iglesia, todos acuden por su orden sin gravar más a unos que a otros. Los que tienen algunos oficios como sacristanes, cantores y otros, éstos están reservados de otros tequios y trabajos porque aquel es su tequio con que se contrapesan con esto todos los cargos (Ximénez, T.I, L.P., C.XXXVI: 105).

이 사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을전체의 일을 할 때는 석공(cantor)이나 사제(sacristan)들은 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을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다른 빠탄에 상응(contrapesar)한다는 말을 적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제와 석공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제는 마을의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반면 석공은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 비록 그것이 존재한다하여도 — 이들이 빠탄을 면제받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이미 마을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응' 한다는 개념이다. 이 말은 이러한 면제가 혜택이나 특권이 아니라 빠탄을 충당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관료들이 빠탄을 면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마을 우두머리나 고급 관료들은 마야 달력에서 이미 종교적인 주기를 넘겨 신성시되는 나이인 52세가 넘은 노인들로서 행정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대가족의 어른이다. 논이나 밭에 나가 일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할하고 그들 후손들이 가져다주는 빠탄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나간다. 앞에서 이미 마야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富)가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보았다. 따라서 빠탄이나 기타 조세와 관련한 여하한 방식의 특권계급형성이라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10. 빠탄에 나타난 상호부조

빠탄의 징수와 운용 그리고 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상호부조의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바탕 속에서 서로간의 필요성을 상호충족 시켜줌으로써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마야 경제의 기본적인 성격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생산활동 역시 집단적인 소유와 노동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부조의 발달로 더욱 그 특수성이 강조된다. 란다는 이러한 점을 적고 있다. “En tiempo de sus sementeras, los que no tienen gente suya obra hacerlas, júntanse de 20 en 20 o más o menos, y hacen todos juntos por su medida y tasa la labor de todos y no la dejan hasta cumplir con todos.” (Landa: 40)

이렇게 발달한 집단성은 또 하나의 뼈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집단적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결정하여 집단적으로 일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러한 결과를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이러한 집단성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면 이는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이러한 집단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라는 말이 되고 뼈대를 운용하는 데에도 역시 이러한 점은 충분히 그 자율이라고 하는 어려운 설정 환경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최대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율을 악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일단 차치한다 하여도 집단 앞에서 혼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이는 곧 가장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마야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야 사회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것에 의하여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만장일치의 전통이 강한 사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렌켄스돌프가 현대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만장일치사회의 면모를 관찰하여 적고 있다.

El consenso representa aquello que los tojolabales buscan y que les parece condición ineludible para que la comunidad se haga realidad. Una comunidad



de consenso, vista desde adentro, explica la importancia del nosotros. [...] Si la delegación de una de las comunidades no está de acuerdo, no se la meta del consenso. Esta sigue vigente. Por ello, la tarea del convencimiento mutua se dificulta mucho(Lenkensdorf: 81-82).

이러한 상호 부조는 대내적으로 볼 때는 상부상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정치, 경제 활동에 나타나며, 대외적으로 볼 때는 무역이나 물물교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페르난데스는 잘 설명하고 있다.

De esa manera todas las actividades productivas se realizaban bajo el principio de la reciprocidad, el cual se caracterizaba por la ayuda mutua entre parientes y vecinos; dentro de este marco las obligaciones económicas de unos equivalían a las de otros, por lo que se ve an obligados a efectuar un constante intercambio de dones y retribuciones. Este pago constituyó, entonces, la clave del sistema económico del Estado maya. Los bienes acumulados eran consumidos por ellos y servían al mantenimiento de las actividades administrativas, militares y religiosas. También se empleaban para atender ciertas necesidades de la población en general: construcciones públicas, almacenamiento de víveres y atención a los minusválidos. El comercio, igualmente, se nutría de los tributos (Fernández: 120).

집단적으로 노동하여 생산하고 공동의 재정을 만들어 이것을 공동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이는 철저히 상호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11. 빠판의 집행

유까판 지역의 경우 까루악(caluc)이라 불리는 빠판을 거두어들이

는 특별한 행정 관료가 존재하였다고 란다는 적고 있다. 그는 빠탄을 걷는 것 이외에도 마을의 종합적인 제정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anda: 14). 그런데 이 관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포괄한다. 단어의 앞에 동사나 형용사에 공히 쓰이는 ‘…하는 사람’ 혹은 ‘…인 사람’을 만들어 주는 전치사인 ‘아(ah)’를 넣어서 ‘아 까루악(ah caluac)’이라고 하게되면 일반적인 의미의 ‘의뢰인’, ‘요구하는 사람’ 등의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까루악이라는 재정 관리원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마을의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을의 공동 경비로 주는 것이다: “Que acostumbraban buscar en los pueblos (a) los mancos y ciegos y les daban lo necesario.” (Landa: 14) 이와 같이 빠탄으로 걷은 재정의 용도가 마을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 빠탄의 성격과 용도를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즉, 마을의 필요에 의하여 거두어진 경비가 마을을 위해, 이 경우에는 마을의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지는 일면을 보게 된다.

어찌되었거나 빠탄으로 거두어들인 것들은 마을사람 전체를 위하여 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이에 반하는 부정이나 일부계층의 유용 등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마을 주민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일단의 관료들을 살해하는 경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Este señor [Cochcal Balam], después de haber edificado y poblado y haber gobernadoáms de cuarenta años, viéndose poderoso y señor de muchas gentes, se ensoberbeció e hizo malquisto, porque vino a despreciar y a tener en poco a sus súbditos y echarles tributos demasiados y hacerles otros malos tratamientos, que fue causa de su muerte, porque la gente popular le tomó

gran odio a él y a sus capitanes, porque también se habían hecho crueles, y habido consejo entre ellos un día los mataron a todos... (Relaciones H.G.G.Y: 138)

이와 같이 공동으로 모여진 빠판은 일부 집단의 경제적인 특권을 유지하는 재원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 이점은 누누이 언급되는 마야 경제의 기본원칙인 구성원들간의 물질적 부(副)가 평등하였다는 점과 그것이 다른 정치, 사회적인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동으로 형성된 재정을 마을 전체를 위하여 쓴다는 근본방침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논지의 흐름에 일조를 한다고 할 수 있다.

## 12. 빠판과 선물

우리들이 사용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야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세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혼용되고 있는지를 보자. 집안의 어른이자 마을의 지도자인 이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노동을 면제해주는 것은 그가 하는 행정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존경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새로운 생산물들을 갖다주는 것을 빠판의 납부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선물인가? 다음의 사료에 나온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 “... cuando cogían las mieles y frutos de la tierra, de los primeros que cogían llevaban al señor cierta parte, no como tributo, sino como voluntario presente, diciendo: esto te traigo de la parte que Dios me ha dado; esta es tu parte, porque te acuerdas que soy tu vasallo...” (Las Casas, T.II, L.T., C.CCXXXVI, :511)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처음으

로 수확한 꿀과 과일을 세금(tributo)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인 선물(presente)의 형태로 최고지도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나는 당신의 신하(vasallo)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왔노라는 말을 한다. 단순히 보면 모순적인 요소가 상당히 지적될 수 있다. 즉, 주종의 관계에서의 복종의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그러나 마야의 정치적인 특성을 보면 이러한 점들이 상당부분 이해될 수 있겠다.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그들이 존경하는 혈족의 지도자 즉 종가집의 큰 할아버지로 생각해 본다면 더욱 많은 부분이 이해 될 것이다. 한편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었음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수확을 잘 이루게 해준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도자에게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Otra especie de tributo tenían los señores, conviene a saber, que los que cazaban les servían con cierta parte, y los que criaban gallinas, después de criadas les llevaban una, diciendo: Tantos hijos de mis gallinas, me ha dado mi Dios; tráigote esta pata para que tú comas, pues eres mi señor y nos tienes en paz y justicia..." (Las Casas.: 510-511)

이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들(señores)이 가진 다른 종류의 조세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 면으로 본다면 사냥이나 닭을 기르는 사람들이 잡거나 기른 것들의 일부를 마치 세금과 같이 주면서 우리의 신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맛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 설명한 선물과 세금의 개념이 이 예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작은 규모의 행정단위들이 가지는 정치, 종교,

사회의 일치가 만들어내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가족의 큰 어른이자 제사장이고 행정을 맡은 마을 최고지도자들에게 공물을 주어 그를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존중과 예우에서 우러나오는 선물과 굳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보게된다. 어디까지가 선물이고 어디까지가 세금이나 하는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자치적으로 반 독립적 씨족국가를 운영하는 마야사회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 13. 빠판과 무역

빠판은 단순히 하나의 자치적인 마을 안에서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마을과 마을간 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도 역시 빠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정치단위들간의 빠판은 피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조공(租貢)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각 지방간의 무역이라는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먼저 다음 사료의 증언을 들어 보자.

Tenían otra manera de rescebir(*sic*) tributo con título de conservar la paz con tal y tal pueblo o provincia, ... Entrando en la casa del señor a quien enderezados iban, poníanle delante su presente y luego le hacían su razonamiento estando sentados en coclillas, ... respondía con rostro alegre que le daba gracias por su buena voluntad que con él tenía y que se holgaba mucho(*sic*) con aquel presente, del cual luego allí mandaba dar cuasi(*sic*) la quincena parte a los mensajeros, y ofrecía su parte, como si diera el diezmo, a sus dioses. (Las Casas: 509-510)

이 글의 앞부분에 분명하게 두 마을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

적의 조세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물(presente)이라는 용어의 적용이 보인다. 또한 이렇게 보내온 이웃동네의 물건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사신에게 선물까지 하사하는 것 또한 특기할 일이다. 즉,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부족사이의 조공이나 세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보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꾸츠떼엘의 연합인 바따빌 역시 좀더 넓은 혈연이라는 공동의식 속에 그 구심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꾸츠떼엘에서 상위 바따빌에게 주는 빠판은 가족장에게 바치는 선물의 의미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은 이러한 마을간의 물자교환에 있어서의 형식적 명목에 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의 이러한 상이한 정치단위들간의 물자의 오고감에 어떠한 해석을 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물론 이점에 관하여 명료한 하나의 설명을 붙일 수는 없다. 각각의 성격과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현상들의 상당부분이 현실적인 무역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또한 교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el *Chel*, que estaba en la costa, no quería dar pescado ni sal al *Cocom*, haciéndole ir lejos por ello, y el *Cocom* no dejaba sacar caza ni frutas al *Chel*.” (Landa: 19) 일단 이 글에 쓰여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바다에 접해 있는 첼(*Chel*)이 꼬꿈(*Cocom*)에게 물고기와 소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꼬꿈은 그들의 땅에서 첼이 사냥을 하거나 과일 채집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되어있다. 한쪽은 단순한 사냥 채집을 허락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물고기와 소금을 주는 것이다.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서의 첼의 꼬꿈에 대한 조공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다른 역사 사료들을 통하여 우리는 첼과 꼬꿈 그리고 시후(*Xiu*)라는 세 개의 부족들이 당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북쪽에서 상당히 대등한 균형을 가지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Landa: 17-18). 더군다나 서로간 조건성의 물물교환

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생산물의 차이를 이러한 방법으로 교환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하위 정치단위가 상위 정치단위 혹은 중앙정부에 바치는 세금이나 조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야는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공이나 세금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무역이나 물물교환의 성격을 띤 지역간의 특산물 이동을 활성화시켰다. 더군다나 이러한 무역이나 물물교환의 재원(財源)자체가 마을 내부의 빠탄을 통해서 마련된다. 따라서 크고 작은 마을간에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이루어지는 조공의 성격을 가진 세금은 결국 작은 의미에서는 물물교환에서부터 크게는 무역의 성격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마야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면은 잉카의 고대문명에서 잘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다. 피이스의 설명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Sobre todo, los estudios acerca de la cultura andina muestran las siguientes: La economía incaica, como la andina en general, se hallaba organizada sobre la base de la reciprocidad y la redistribución Prestaciones recíprocas, regidos por las reglas y vinculos de parentesco, ...” (Pease: 48) 잉카의 경우 중앙 연맹의 중재 하에 지역 간의 다양한 생산물들을 교환하여 사용한 반면 마야 사람들은 이것을 각 꾸츠메엘이나 바따빌의 단독적인 무역이라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잉카는 중앙 연맹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말한다면 마야의 경우는 중앙 연맹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지방분권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 14. 끝내는 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마야 사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우리들의 보잘 것 없는 지식조차도 많은 부분 튼튼하지 못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으며, 따라서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문적인 다양한 시도와 논의, 제언, 토론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이다. 결국 이제까지 그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 채 과학이라고 불리는 현대 학문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던 고대 마야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시각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간에 재론되어야 한다. 기존의 의견들은 마야 사회를 총체적인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라치 우이닉 이라는 최고 지도자와 — 이를 가리켜 왕 심지어는 황제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상류 계급의 절대적인 특권을 강조하였지만 사회제도에서의 신분 변화의 역동성과 토지를 비롯한 물질적인 소유가 그들의 배타적 특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특권이라는 부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따라서 마야 사회는 비록 시험적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가능성의 타진이라는 검증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마야의 공동재정, 즉 조세제도라고 일부 해석될 수 있는 빠판이라는 소재는 위에서 말한 다른 시각으로 마야 사회를 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은 필자가 이전 논문들을 통하여 주장해 오던 가족체제를 중심으로 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마야 사회라고 하는 제언의 한 부분이자 또 다른 해석의 확대로서, 이전 논문들과 같은 맥락에서 상호



보완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 마야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관련된 조세제도는, 비록 직설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여 귀족 계급의 특권적 부(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財源)이라는 설명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료의 증언을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면 그러한 해석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먼저 **빠탄**을 책정함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되어오던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책정되는 것들은 각 대가족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되는 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즉, 각 가족 대표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빠탄 부담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빠탄을 징수하는 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세금의 양에서부터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융통성을 가진다. 때에 따라 덜 낼 수도 있으며 또한 더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점은 마야의 후고전기 사회가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자치성에 바탕을 둔 씨족 중심적인 정치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빠탄의 면제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고위 행정관료들은 납부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특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노동하는 대가로서 마을의 도공이나 석공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의 전문적인 노동을 통해서 납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배경으로 한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점은 고대 마야 사회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부(富)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각 사회 구성원들간의 물질적인 소유의 차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면을 생각한다면 더욱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빠탄 혹은 마야 사회의 공동재정은 마을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거두어져서 전체 마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의 강력한 전통 중의 하나인 상호부조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나 두레, 향약, 품앗이와 같은 전통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마야의 경우 마을 자치 단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정치단위가 되다보니 다른 대단위 국가에 비교하여 작은 지방 행정단위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많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상호부조가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화, 제도화되어 갔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물은 빠탄의 또 다른 일면인 자치적인 씨족국가로 조직화된 그들의 가족적인 운영체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무역은 빠탄의 경제적인 측면 중에서도 마을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타지역의 생산품들을 공동의 무역을 통해 얻는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마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이라는 빠탄이 가지는 어원에서 유추 가능한 의미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진다.

그렇다면 마야 사회가 이러한 공동재정 운영상의 특징을 가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반 독립적인 씨족 국가체제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만 하다.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하나의 마을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치적인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의 자연스러운 이유와 성격들이 많은 부분 풀려간다.

이제는 조세라고 하는 것과 마야의 빠탄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보아야 하겠다. 이곳에서 본 마야의 빠탄은 상하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강제적 의무라는 조세의 현실적인 성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탄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책정과 납부, 지출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부조이다. 여기에 선물의 성격이 이

빠딤과 연결되어 조세의 기능을 일부 담당한다. 또한 마을간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조공이 물물교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무역의 재원(財源)이 빠딤에서 만들어진다는 특징도 글을 마무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한편 이 논문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또 다른 것 중의 하나로 용어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빠딤이라고 하는 용어의 활용을 제안한다. 제일 먼저 마야의 빠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금이나 조세라는 말과는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세라는 용어의 적용을 통하여 생겨나게 될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마야의 특징을 좀 더 그들의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빠딤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좀더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이 용어가 마야의 다양한 방언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공히 사용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빠딤이라는 용어 사용의 합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인용 문헌

송영복

1998 “La dinámica de la sociedad maya: La función del sistema de familia en la organización social maya del Posclásico”,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인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멕시코.

---

1999 “고대 마야 사회, 정치 제도 속에서 대가족 체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사회 계급 존재 유무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학회, 라틴아메리카 연구, 서울.

Ara, Domingo de

1986 *Vocabulario de lengua tzeldal según el orden de Copanabastla*, Edición de Mario Humberto Ruz, UNAM., IIF., CEM., México.

Archivo General de las Indias, en Kramer, Wendy, Lovell, W. Georgey Lutz, Christopher H.

1986 Las tasaciones de tributos de Francisco Marroquín y Alonso Maldonado, 1536-1541 Mesoamerica, año 7, vol. 12, Guatemala, Centro América.

Alvarez A., Carlos, Lowe, Lyneth S.

연도미상 “Informe preliminar de las exploraciones realizadas en el sitio cimientos de las Marg9aritas, Chiapas. Segunda Temporada - 1995-” UNAM., IIFL., CEM., en prensa.

*Calepino de Motul, Diccionario Maya - Español*,

1995 Edición: Arzápalo Marín, Ramón, UNAM., IIA., México.

Carmack, Robert

- 1979 *Historia social de los Quiches*, Editorial Jose de Piñeda Ibarra  
Ministerio de Educación de Guatemala, Guatemala.

Chase, Diane Z.

- 1985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Land of Cacao and Honey: Correlating the Archaeology and Ethnohistory of the Postclassic Lowland Maya", in *Late lowland Mayas civilization*, Edition of Jeremy A. Sabloff y E. Wyllys, Andrews V. A school of American Research book, Santa Fe.

Codice Calkini, Véase Okoshi

- 1991 *Diccionario Maya*, Director de la Edición: Barrera Vásquez, Alfredo, Porrúa, México.

Fernández Tejedo, Isabel

- 1996 "Intercambio sin mercados entre los mayas de las tierra bajas" en *Temas Mesoamericanos*, Coordinadores: Lombardo, Sonia y Nalda, Enrique, INAH.,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México.

Freidel, David A. y Sabloff, Jeremy A.

- 1984 *Cozumel late Maya settlement patterns*, Academic Press Inc. Orlando.

Landa, Fray Diego de

- 1986 *Relaciones de las cosas Yucatán*, Porrúa, Introducción por Angel M. Garibay K. México, (Biblioteca Porrúa 13).

Las Casas, Bartolomé de

- 1967 *Apologética historia sumaria, quanto a las qualidades, dispusición, descripción, cielo y suelo destas tierras, y condiciones naturales, policías, republicas, manera de vivir e costumbres de las gentes destas indias occidentales y meridionales cuyo imperio soberano pertenece a los reyes de*

*castilla*, Edición preparada por Edmundo O Gorman, 2 tomos, UNAM., IIA., México(Serie de historiadores y cronistas de Indias:1).

Lenkensdorf, Carlos

1996, *Los hombres verdaderos*, Siglo XXI, México.

López Cogolludo, Diego

1842 *Los tres siglos de la dominación española en Yucatán, o sea Historia de esta provincia desde la conquista hasta la independencia*, Impreso por José María Peralla, Campeche, 2 tomos, México.

Márquez Morfín, Lourdes

1996 "Paleoepidemiología en las poblaciones prehispánicas mesoamericanas" en Revista Arqueología Mexicana, vol. IV, Num., 22, Noviembre-Diciembre, México.

Okoshi, Tsubasa

1992 "Los canules: Analisis etnohistorico del c dice de calkini", Tesis de doctorado, UNAM., FFL., México.

---

1995 "Gobierno y pueblo entre los mayas yucatecos posclásicos" en revista Universidad de México, UNAM., Núm.534-535, México, Julio-Agosto.

Pease G. Y.

1991 Franklin, *Los últimos incas del Cuzco*, Alianza Editorial, España.

*Primera parte del tesoro de las lenguas Cakchiquel, Quiché y Zutubil, en que las dichas lenguas se traducen a la nuestra, española*

1985 Edición de Fray Francisco Ximénez Academia de Geografía e Historia de Guatemala, Guatemala.

*Relaciones historico-geograficas de la Gobernación de Yucatán*

1983 Paleografía de Ma.del Carmen León, Edición de Mercedes de la

Garza *et-alii*., Centro de Estudios Mayas, UNAM., Mexico (Serie Fuentes para el estudios de la Cultura Maya: 1, 2 vols).

*Relaciones Geográficas del siglo XVI: Guatemala*

1982 Edición de Acuña René, UNAM., Mexico.

Ruz, Mario Humberto

1985 *Copanaguastla en un espejo, Un pueblo tzeltal en el virreinato*, Universidad Autónoma de Chiapas, Centro de Estudios Indígenas, México.

Scanborough, Vernon L.

1991 *Arqueology at Cerros, Belize, Central America*,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Dallas.

Ximenez, Fray Francisco

연도미상 *Historia de la provincia de San Vicente de Chiapas y Guatemala*, Biblioteca Goathemala, Guatemala, Vols. I-III.1929-31.